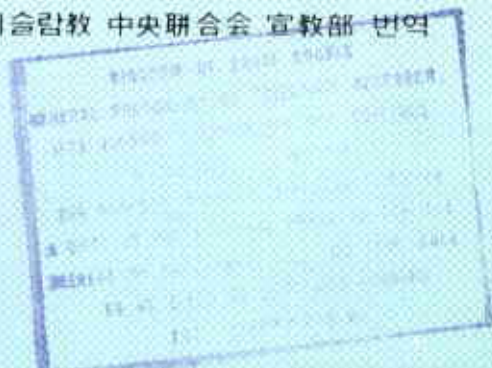
이슬람文庫 7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이슬람의 기본원칙

ISLAM

— Its Basic Principles & Characteristics —

쿠르시드 아흐맏 著
韓国이슬람教 中央聯合会 宣教部 번역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1400 A.H.
1980 A.C.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Fahed Salem Street
P.O. Box 2857 Tel: 414220

The Series NO. 7 OF Islamic Literature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ISLAM

—Its Basic Principles & Characteristics—

By Khurshid Ahmed

Originally Published by the Islamic Center of U. K.

Translated and Published by Missionary Department
of the Korea Muslim Federation.

❖ 차 례 ❖

이슬람, 그 기본원리와 성격

1. 이슬람의 기본개요

이슬람교는 진리의 종교이다. 이슬람은 조물주요 만물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인류를 인도하고자 계시하신 인간의 생활규범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종교이다.

인간은, 자기 삶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두 가지 사항을 필요로 한다. 즉 첫째로, 생활을 유지시켜 나가고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요소가 그 하나요, 둘째로, 개인적 사회적 행동원리에 관한 지식이니 이는 인간에게 자기달성을 가능케하고 인간생활에 있어서 정의와 평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알라께서는 이 두가지 측면을 완전히 마련해 주셨다. 물질적 요구사항을 조달하고자 하느님께서는 자연 속에 온갖 것을 마련하시어 인간이 뜻대로 이용하게끔 하셨다.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응하여 하느님은 인간 가운데서 예언자들을 고르시어 그들에게,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생활규범을 계시하셨다. 이 생활규범이 곧 이슬람교인즉 하느님의 모든 예언자들이 가르쳐 온 바로 그 진리의 종교인 것이다.(註①)

알라께서 이르되 『너희들은 말할지어다 : 우리는 알라를

訳者註) 흔히 일반 메스콤에서나 학자들이 쓰고있는 "알라神" 이라는 표현은 옳지 못한 표현이다. "알라(Allah)"라 함은 하나님, 하느님, 神, God 등을 아랍어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알라神"이란 표현은 "神神"이라는 同語反復的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본 서적에서 쓰여진 "하나님," "하느님," "神," "알라"는 전부 동일 개념임을 밝힌다.

믿고 또한 알라께서 우리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종족에게 내리신 계시를 믿으며 모세와 예수 그리고 그 외 모든 예언자들에게 내리신 알라의 계시를 믿는다고.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예언자들을 동등하게 존경하오며 알라께 엎드려 복종한다고. (쿠란 3 : 83. 2 : 136)』

또한 쿠란의 다른 장에 계시하시되 : 『주께서는 너(오, 무함맏이여)에게 진리로서의 성전을 계시하노니 이 성전은 이전에 계시내렸던 구약의 율법서와 신약의 복음서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다짐하는 것이니라. 이것으로서 인류에게 지침서가 되게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할지니라. (쿠란 3 : 3-4)』

이 모든 성서들은 전인류를 하느님의 길로 불러 들여 알라에의 복종을 호소하는 것이었으며 이들 성서들은 하느님(알라)께서 보내신 동일한 멧시지들을 전하는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니 이 성전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슬람이라 하는 것이다.

이슬람이란, 아랍어로 복종, 굴복, 순종을 뜻하는데, (註②) 이는 알라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으니 우리의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슬람이란 말은 또다른 뜻으로 「평화」를 의미하고 있으니 인간은 알라에의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은 마음의 평정을 얻고 넓게는 사회에 진정한 평화를 확립 시킬수 있는 것이다.

『알라를 믿고 항상 알라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마음의 휴식을 찾는 자— 사람의 마음이 진정코 휴식을 찾을 곳은 정

녕 알라에게서 뿐이니라-, 그리고 알라를 섬겨 의롭게 행동하는 자들은, 기쁨이 저들의 것이며 복된 가정의 주인이 되리라.(쿠란 13 : 28-29)」

하느님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 멧시지를 가르쳤으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기를 거듭했을 뿐 아니라 예언자들이 전해 준 지침서인 율법들을 소실하거나 왜곡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여러 차례 인류에게 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원래의 멧시지를 재정립하고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셨다. 그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무함맏(그에게 평화가 깃드소서) 인즉 그는 하느님의 지침을 그 궁극의 형태로 나타내 보였으며 그것이 영원토록 보전되도록 정리해 놓았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침사항인 바 그것은 쿠란에 소중히 담겨진 내용과 예언자 무함맏의 생활표본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의 기본개념은 만물이 하느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며, 하느님은 아랍어로 「알라」라고 명칭되어지는데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 홀로 삼라만상을 유지하고 있다. 알라는 인간을 창조하여 각자에게 한정된 기간동안 땅 위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셨다. 알라는 어떤 특정한 생활규범을 인간에게 합당한 것으로 명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이 규범을 실생활의 기조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하느님께서 제시한 이 규범을 따를 것을 택하는 자는 무슬림(신자)이

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카피르(불신자)가 된다. 하느님을 정직하게 믿고 하느님과 예언자 무함맏(그에게 평화가 깃드소서)과 화합하여 믿음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무슬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알라에 대한 믿음은 무슬림의 신조, 「칼리마(Kalimah)」에 잘 요약되어 있다.

"라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두르 라술룰라"

(알라 외에 다른 神은 없으며 무함맏은 그분의 사도이시다)

이 칼리마의 첫 부분은 「따히드(Tawhid) : 하느님의 유일성」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무함맏(그분께 평화가 깃드소서)의 예언자적 직위를 확인하고 있다. 「따히드」는 하나의 혁명적 개념으로서 이슬람의 가르침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이 삼라만상의 주인이시며 가장 높으신 하느님은 단 한 분 뿐임을 의미한다.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안계신 곳이 없으며 세계와 인류를 부양해 나가는 분이시다.

자연의 무진장한 창조력과 그 의미심장함, 그리고 도덕적인 미덕은 보전되고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은 파멸되는 현상들을 지켜 보노라면, 그 배후에는 끊임없는 창조력을 지니면서 만유에 고루 스며드는 뜻이 있어 자연현상이란 다만 그 뜻의 드러난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을 어찌 결론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끝없는 창공에 흩뿌려진 별들, 아름다움에 넘쳐 흐르는 자연의 광대한 파노라마, 이지러졌다 가는 다시 차오르는 달의 현상,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경이로운 조화, 이 모두가 세상에는 하나뿐이신 하느님이 계시며 그분은 바로 조물주요 지배자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

우주가 놀랍게도 흠 하나 없이 설계되어 있음을 목격하건데 그에 어찌 설계자가 없겠는가? 황홀한 아름다움과 조화를 지니면서 운행되는 우주를 보건데 그에 어찌 조물주가 없을 수 있겠는가? 자연과 인간존재에 깃든 드높은 의지를 느끼건데 그에 어찌 숨은 뜻이 없겠는가? 이 우주가 경이롭고도 흥미진진하게 쓰여진 소설임을 발견하건데 그에 어찌 저자가 없겠는가? 진실로 알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인류여: 너희 주를 경배하라. 주님은 너희와 너희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이를 창조하신 분일지니 너희는 악을 피할 수 있나니라. 너희에게 휴식처로서 땅을 정해주고 지붕덮개로서 하늘을 정해준 자 누구인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사 과일을 자라게하여 너희를 풍요히 먹여 살리는 자 누구일까? 그러니 너희들 분별이 있거든 알라앞에 우상을 세우지 말지어다. (쿠란 2:21-22)」

이것은 무함맏(그에게 평화가 깃드소서) 이 알라의 계시를 받아 인류로하여금 준수하도록 한 이슬람의 기본교의로서 매우 중요한 형이상학적 관념을 암시하는 것일지 모르나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답하는 길인 것이다. 그것은 이우주 가운데에 율법의 우월성과 삼라만상의 다양성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유일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유일성은 세계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제시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우주 전체에 대한 조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과학자와 철학자의 단편적 견해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왜소케 만들고 있으며 인간의 눈 앞에 무엇이 참진리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부각시켜 주고 있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지리하고 어두운 암흑속에서 진리

에의 방황을 계속해 왔다. 이제 인간은 이러한 개념의 진리를 실현하기에 이르렀으니 현대의 과학적, 논리적 사고방식까지도 이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註③)

그러나 이슬람은 단순히 추상적 관념만은 아니다. 그것은 다이나믹한 믿음이며 혁명적 교리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이신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것이다. 유색인종차별이나 계급, 종족 또는 국적에 대한 차별의식은 근거가 없으며 가공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차별의식은 인간을 예속상태에 얽매어 놓게했던 암흑시대의 잔여물인 것이다. 인류는 모든 하느님의 한 가족이므로 여기에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없다.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유산자와 무산자, 백인과 흑인, 아리아인종과 비아리아 인종, 서양인과 동양인 사이에 결코 차별이 있을수 없다. 이슬람은 인류의 통일에 대한 혁명적 개념을 제공한다. 예언자 무함맏은 전 인류를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기반 위에 하나로 통합하고 부활의 날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보내진 것이다. 성 쿠란에 이르되:

『알라의 밧줄을 견고히 붙들지니 너희들간에 서로 분열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서로 적이 되었을 때마다 너희들 모두에 대한 알라의 축복을 기억할지니: 진실로 알라께서는 너희들을 사랑속에 살게하시고 그분의 자비로서 너희들을 형제되게 하였음을 항상 기억할지어다. (3－103)

이러한 개념 역시 이 우주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확실히 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하느님은 조물주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하느님의 대

리자인 것이다.(註④) 이러한 관념으로해서 인간은 하느님이 보내신 地上의 대리인이라는 높고 존귀한 지위를 갖게되고 그의 인생은 하느님의 뜻을 땅위에 완성한다는 보다 높은 목적의식을 부여받는다. 이뜻은 인간사회내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마침내 평등과 정의와 평화와 번영이 충만하는 세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슬람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유일성 (따히드〈Tawhid〉)」에 대한 믿음에 있는 것이다.

2. 예언자의 지위와 未来에의 믿음

「칼리마(Kalimah)」의 둘째 부분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혼자 살아 나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들 인간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시를 내려 주셨고 이계시들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되어 왔는데 무함맏(그에게 평화가 깃드소서)은 그 마지막 예언자였다. 그런 즉 예언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멧시지를 믿고 그가 부여한 율법을 받아 들이며 그가 가르친 행동규범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두번째 기본원리는 무함맏(그분께 평화가 깃드소서)이 예언자임을 믿고 그가 제시한 종교를 받아 들일 것이며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쿠란에 의하면, 모든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주인되십이라는 원칙과 예언자가 神性의 원천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는 원칙위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이다. 예언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해 왔다.

『나는 지극히 신뢰받을 만한 하느님의 사도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하시오』라고. (註⑤)

하느님의 지침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지침을 몸소 실천하며 바람직한 영향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의 일부였던 것이다. 예언자들은 모두가 하느님의 대표들이지만 그들 역시 인간으로서 그들의 인생은 인류를 위한 본보기였던 것이다. 무함맏(그에게 평화가 .소서)은 그 마지막 예언

자이기에 그의 생애는 인류에게 궁극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곧 최고 통치자의 대표라는 그의 권위를 받아 들이는 것이며 사고와 행동에서 그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규범은 "사물의 옳음과 금지된 것(하랄과 하람 : Haral and Haram)"을 정해 놓은 법규인데 이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것으로서 이것은 샤리아(Shariah)로 알려져 있다. 예언자에 대한 신앙은 샤리아, 즉 그가 전해준 인생의 길을 받아들일 것과 모든 인생행로에서 그것을 이행해 나갈 것을 포함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땅 위에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며 방법인 것이다.(註⑥)그래서 성 쿠란에 이르기를,

『알라께서 보내신 모든 예언자들은 알라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느니라(쿠란, 4 : 69)』

최후의 예언자 무함맏에 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진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니로다(오 무함맏이여) 네 주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논쟁에서 너를 최후의 중재자로 받아 들이고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충심으로 너의 결정에 굴복한 연후에야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리라. (쿠란 4 : 65)』

한 인간이 하느님과 그 예언자를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계시된 알라의 지침을 준수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알라께서 계시하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진실로 불신자 일지니라. (쿠란 5 : 44)』

그러므로, 하느님과 예언자 무함맏에 대한 신앙이 의미하는 바는, 하느님과 예언자 무함맏에게 순종한다는 서약

과 개인적, 집단적 생활을 하느님과 예언자 무함만께서 내려주신 율법과 지침에 따라 생을 영위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문이 야기될수 있는 것이다. 즉 율법을 준수하는 자와 이를 거부하는자가 동등하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알라께서는 이들 두 유형의 인간들을 같이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다룰것인가? 우리의 인간생활에서 행동과 태도를 달리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

이는 우리에게 이슬람의 세 번째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来世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現世란 하나의 심판과 시련의 장소로서 인간은 그 안에서 유한하게 생존할 뿐인 것이다. 인간은 그가 현세에서 행한 모든 행동의 기록들을 최후의 심판날에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날 현세에서의 생애가 막을 내리고 그 후에 새로운 세계가 부활되는 것이다. 인간은 그가 행한 공적에 따라 보상받거나 그가 저지른 악행에 따라 벌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심판은 死後의 人生, 즉 来世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현세에서 하느님에게 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요 하느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대가로 쓰디 쓴 형벌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 쿠란에 말씀하시길 :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여 각자의 목둘레에 매어 두었나니 최후의 심판날에 인간 각자에게 하나의 기록서로 펼쳐 놓으리라 : "너희가 현세에서 행한 행동의 기록을 읽을지니 이 최후의 심판날에 너희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될자는 너희들 자신 뿐이니라.(쿠란 17 : 13-14)」

『선행을 하는 자는 누구나 그 열배로 보상받을 것이요, 악행을 행하는 자 누구나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것이니 알라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느니라. (쿠란 6 : 160)」

그러므로 이슬람 신앙의 기본 신조는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a)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b) 무함맏(그에게 평화가 깃드소서)의 예언자적 지위와 그가 전해준 하느님의 계시를 믿는 것.

(c) 來世에서의 生과 부활을 믿고 모든 인간이 최후의 심판날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진실을 믿는 것이다.

누구든 이 세가지의 信条를 믿는자는 무슬림인 것이다. 이 모든 개념은「칼리마(Kalimah)」, 즉 "알라이외에 神은 없고 무함맏은 알라의 사도이시다"라는 귀절속에 요약되어 있는 것이다.

3. 이슬람교의 몇가지 기본성격

「죠지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나는 항상 무함맏의 종교를 그 놀라운 생동감으로 인해 높이 평가한다. 나에게는, 이슬람교만이 인간존재의 변천하는 양상에 동화력을 지니는 단 하나의 종교로서 어느 시대에나 생생한 감동을 주는 것 같다. 나는 무함맏 -이경이의 인간- 에 대하여 연구했는데 나의 견해로는 그가 反크리스도적 이기는 커녕 그야말로 인류의 구세주로 불리워야한다. 무함맏과 같은 사람이 현대에 통치자로 군림한다면 그는 현대세계의 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여 인류가 갈망하는 평화와 행복을 실현할 것으로 믿어진다. 나는 무함맏의 신앙이 내일의 유럽사회에 받아질 것이라고 예언한바 있는데 오늘날 벌써 그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註⑦)

문제는 이슬람교의 성격이 도대체 어떻하길래 과거와 현대를 막론하고 숱한 사람이 믿고 따르는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의 내용들은 이슬람교의 몇가지 주된 성격에 관한 것이다.

1) 단순성, 합리성 그리고 실천성

이슬람은 그 어떤 신비성도 배제하는 종교이다. 그 가르침은 단순하고 습득하기 쉬운 것이며 미신이나 비합리적믿음이 전혀 없다. 하느님의 유일성과 무함맏(평화가 그분께 깃드소서)의 예언자적 지위 그리고 来世에서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슬람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信条들은 이성과 건전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슬람교의 모든

가르침은 그러한 기반에 연유하고 있으니 단순하고 솔직한 것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승려계급도, 현실로부터 유리된 추상적 개념도, 복잡다난한 성례와 의식도 없다. 누구나 하느님의 聖典에 직접 접할 수 있으며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종교이다.

이슬람교는 인간에게 이성의 기능을 일깨워 그 지능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의 빛을 통하여 사물을 보도록 명한다.

성쿠란은 모든 인간에게 『오, 나의 주님! 나의 지식이 발전케 하소서(20 : 114)』라는 기도를 드리도록 권유한다. 쿠란은 단언하기를 『有識者와 無識者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느니라. (39 : 9)』, 그리고 『理性을 갖고도 이해 못하며, 눈을 갖고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느니라(7 : 179)』 『하느님의 계시는「지식을 가진 자」와「이해력을 가진자」에게만 전달될수 있는 것』이며(6 : 97) 『지식을 갖춘자는 선행 또한 풍요하게 쌓느니라』(2 : 269) 고 했던 것이다.

또한 쿠란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은 지식과 육체적 강인함이니라』(2 : 247) 고 계시내리며 『부지런히 지식을 쌓을지니 그 지식은 인간을 천사보다 우월케 하리라. 진실로 인간은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가운데 유일한 알라의 대리자이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무함맏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식을 얻기 위해 가정을 떠나는 자는 진실로 알라의 길을 걷는자이니라』

『지식의 추구는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이니라』

『지식을 획득하라. 알라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바로 경건을 행함이요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로 알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라』

이렇듯 이슬람은 미신과 암흑에 파묻혀 있던 인간을 지혜와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슬람교는 실천적 종교로서 공허한 空理空談을 배격한다. 이슬람에 있어서의 신앙이란 단순한 신앙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활, 그 자체의 주요동기가 되는 것이다. 알라에 대한 믿음은 곧 의로운 행동을 수반한다. 종교란 실천하는 것이지 단순히 입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쿠란은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고 의롭게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에서의 기쁨과 내세에서의 축복이 보장되리라』(쿠란 13 : 29) 하셨다.

그리고 예언자 무함맏(평화가 그분께 깃드소서)은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하느님은 믿음이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시니라. 그리고 행위가 믿음과 부합하지 않을진데 이 또한 수락하지 않으시니라』

때문에 이슬람교는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실천적인 종교인 것이다.

2) 물질과 정신과의 합체(合体)

이슬람의 독특한 특성은 인간생활을 물질과 정신이라는 화합할 수 없는 측면으로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슬람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을 뜻한다. 이슬람교는 금욕주의를 신봉하지 않으므로 인간에게 물질적인 것을 피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슬람교는 현실을 포기함으로써가 아니라 생활의 거치른 세파를 극복하여 경건히 살아나감으로써 인간에게 정신적 고양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종교이다. 쿠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권한다.

『우리 주님이시여! 현세와 내세에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쿠란 2 : 201)』

알라께서는 그의 은혜로운 축복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에게) 말할지어다. 너희는 누구의 명으로,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창조하신 즐거움을 부인했으며, 너희를 위하여 만드신 저 유익한 것들을 먹고 사용하기를 거부했는가? (쿠란 7 : 32)』

이슬람교의 강령은 이러하다. 『먹고 마시라, 단 한도(절게와 품위의 한계)를 넘지 말지어다.(쿠란 7 : 31)』

성예언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현실의 와중에서 살아 나가면서, 닥쳐오는 고뇌를 참을성있게 견디어 내는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그에게 떨어진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자이니라』 하셨다.

그리고 부언하기를

『단식을 하되 적당한 시기에 이를 중단하라. 그리고 밤에는 정성을 다하여 기도 드리고는 잠 잘지어다— 왜냐하면 너희 육신 역시 제나름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네 눈 또한

제나름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너의 아내는 너에게 당연히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너를 방문하는 자 역시 제 나름의 당연한 권리를 지니고 있느니라」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 바도 있다.

『믿는 자들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지킬지어다./』

(a) 자신이 궁색할때라도 남을 도울것.

(b)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할 것.

(c)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반성할 것.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이 그의 모든 정력을 기울여 건강하고 덕있는 인생기반을 확립할 것을 명한다. 이슬람교는 정신과 물질의 힘이 서로 융합되어야 하며 정산적 구원이란 물질적 자원을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히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금욕생활이라든가, 인생의 험난한 도전을 회피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지금껏 지나치게 일방적인 편견에 지우쳤던 종교와 이데올로기들을 많이도 겪어왔다. 어떤 종교들은 생의 정신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국면을 무시해 버린 바 있다. 그러한 종교는 現世를 하나의 幻影 내지는 속임수 또는 함정으로 간주해 왔다.

반면에 물질적 이데올로기는 생의 정신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여 이를 허구와 상상의 세계로 추방하였다. 양쪽이 모두 불행을 초래하여 급기야는 인류에게서 평화와 만족과 평온을 빼앗아 갔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동서 양대 진영사이의 불균형은 여전하다. 프랑스의 과학자 「드·브로비」박

사는 다음과 같이 피력한바 있다.

•『지나친 물질문명에는 그 본래의 위험이 있으니 이는 바로 문명 그 자체이다. 그것은 정신생활의 발전이 그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 생기는 불균형이다』

기독교는 하나의 극단으로 지우친 과오를 범했다. 현대 서구문명은 세속적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마르크시스트적 사회주의의 변천, 대립속에서 각기 다른 극단적 국면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것이다.

「스넬」경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겉보기에 잘 조화된 건축물을 세웠으나 내부질서라는 본질적 요구를 등한시했다. 우리는 세심하게 디자인하고 장식하여서 컵의 바깥부분은 깨끗이 잘 만들었으나 컵의 내부는 착취와 잉여로 채워져 있다. 우리는 늘어나는 지식과 힘을 사용하여 육체의 안락을 얻었으나 우리의 정신은 빈곤가운데 버려져 있을 뿐이다』(註⑧)

이슬람교는 인생의 이러한 두가지 양상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슬람교는 말하기를 이 세상 만물은 모두가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향유하기 위해 인간자체가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의 목적이란 윤리와 바른질서를 확립하여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정신적 요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물질적 요구 또한 충족시킨다. 이슬람교는 인간에게 그의 영혼을 정화시킬 것, 또한 그의 일상생활을 개인과 사회라는 양 측면에서 개혁할 것을 명한다.

그리하여 권력에 대해서는 정의의 우월을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미덕의 우월을 확립시킬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중용을 나타내며 공정한 사회에 봉사하는 윤리적 인간의 배출을 그 목표로 삼는다.

3) 완벽한 생활양식

이슬람교는 왜곡된 뜻으로 그 적용범위를 인간의 사생활에다 두는 평범한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생활양식으로서 인간존재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적용범위를 펴고 있다. 이슬람교는 모든 인생행로에 지침을 제공하는 종교인바 개인과 사회, 물질과 정신, 경제적, 정치적, 法的, 문화적, 국가적, 국제적등 모든 면에 걸쳐 하나의 지침을 제시해준다. 쿠란은 인간이 아무런 조건없이 이슬람세계에 들어 올 것과 모든 인생행로에서 하느님의 인도를 받을 것을 명한다. (註⑨)

종교가 인간의 사생활만을 제한하여 종교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를 무효화시켰던 시절은 사실 불행한 시대였다. 현대에와서 종교가 쇠퇴해 가는 원인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교가 인간의 사생활만을 제어하는 것으로 후퇴해 버린 점이리라. 어떤 현대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것과 「시이저」의 것을 구별하라고 요구한다. 이 두가지를 공정히 분리한다면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둘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전쟁의 암운이 우리를 내려 닮고 산업경쟁이 사회평화를 위협하는데도 종교를 신봉한다는 자가 양심에 거리낌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한 종교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의 것과 시이저의 것을 분리시킴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양심과 도덕적 감각을 약화시킨 것이다』

이슬람교는 종교의 이러한 관념을 전적으로 비난 하면서 우리 종교가 영혼의 정화와 함께 사회의 개혁과 재구성을 목표로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니 쿠란의 다음 귀절에서 이것은 명쾌히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진실로 사도들을 명백한 증거를 갖추어 세상에 보내었나니 그들을 통하여 경전과 평형(즉, 정의를 확립할 권위)을 계시하여 모든 인류가 정의와 올바른 규범을 지키도록 했느니라, 또한 알라께서는 막강한 힘이 깃든 쇠 (즉 強制力)를 보이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류에 유익하게 사용하는도다. 알라께서는 하느님과 그가 보내신 사도를 도우는 자를 숨어서 지켜 보시는도다. (쿠란 57 : 25)』

『모든 율법은 알라 외에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닐지니 너희들은 알라를 섬겨야 하느니라. 그것이 곧 바른 길이로다. (쿠란 12 : 40)』

『무슬림들이란 알라께서 그 힘을 내려주사 예배와 자선을 행하며, 미덕을 권장하며 악을 금하는 자들이니라. (쿠란 22 : 41)』

성 예언사께서도 말씀하시길 :

『너희는 각 자가 모두 파수꾼이요, 목동일지니. 너희 무리들이 잘 있는지 항상 물어 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라. 그런즉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안녕에 대하여 물음을 받을 것이로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집안을 보호하는 양치기이니 그 가족성원 가운데서 누구를 지적하여 그 안녕

을 물을 것인가? 여인들은 누구나 그 남편의 가정을 지키는 목자이니 가족 모두의 안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느니라. 또한 종들은 그 주인을 지키는 자이니 주인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해야 하느니라』라 하셨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간략한 고찰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생활의 모든 양식에 걸쳐서 그리고 인간존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악마의힘이 횡행할 여백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註⑩)

4) 개인과 사회와의 조화

이슬람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에 평형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교는 인간의 개성을 믿으며 하느님앞에서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책임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슬람교는 개인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며 그 누구도 이를 간섭하도록 허용치 않는다. 개성의 독특한 발전을 이슬람교육의 제일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은 社会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개성을 상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성 쿠란에 말씀하시길:

『인간은 오직 그 스스로를 위해 투쟁해야 하느니라』 (쿠란 53:39)』

『너희가 받는 모든 고통은 너희 스스로가 만든 것이니라』

『인간이 먼저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알라께서는 그들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도다』 (쿠란 13:11)

「알라께서는 인간에게 능력이상의 짐을 지워주지 않느나니 인간은 자신이 얻은 바로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느니라」(쿠란 2 : 286)

「인간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느니라」(쿠란 28 : 55)

반면에 이슬람은 인간의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사회나 국가속에 인간을 조직화시키므로서 인간 각자가 사회적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슬람의 금요합동예배는 무슬림간에 지켜야 할 사회적 원칙들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무슬림은 자선을 베풀게 되어 있는데 쿠란은 이점을 「자선을 베푸는 자나 자선을 베풀어 받는 자나 각자의 부를 축적할 권리가 있다」(쿠란 51 : 19)고 명백히 하고 있다.

「聖戰(Jihad)」은 경우에 따라서 이슬람과 이슬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슬림의 의무인 것이다. 성 예언자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류는 한 울타리안의 구성원인 바 각자는 자신의 집단에 대해 파수꾼이 되고 목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협조하며 생활할지니 서로 반목하지 말지어다. 타인들에게 이로움을 베풀고 타인이 행하는 일를 방해해서는 안되느니라」

「그의 이웃이 굶주리는데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자는 不信者이니라」

「알라를 믿는 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이니라」라 하셨다.

요컨데 이슬람은 개인이나 사회를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이슬람은 개인과 사회를 균형있게 조화롭게 만드며 이러한 것을 위한 적절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註⑪)

5) 보편성과 휴매니즘

이슬람의 멧세지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슬람에 있어서 알라는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하느님을 뜻한다 (쿠란 1 : 1) 그리고 예언자 무함맏 역시 인류 전체를위한 하느님의 사도인 것이다. 쿠란에 계시되기를,

『오! 사람들아!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보내진 알라의 사도이니라』(쿠란 7 : 158)

『나는 모든 종족들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이 세상에 나왔느니라』(쿠란 25 : 1) 그리고 『알라께서는 너, 무함맏을 온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는 원천으로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느니라』(쿠란 21 : 107) 하셨다.

이슬람에서는 피부색, 언어, 종족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것을 강조한다. 이슬람은 이러한 인류의 평등사상을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고 종족, 지위 그리고 부(富)에서 야기되는 기만에 찬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벽들은 과거에도 존재해 왔고 오늘날과 같이 開明된 현대사회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은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고 전체인간이 하느님의 한가족이 되도록 하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 예언자 무함맏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한 가족을 이룰지니 그 피조물들을 가장 아끼는 자는 곧 하느님의 총애를 받는 자이니라』

『오 주님이시여! 내 생명과 우주만물의 주님이시여! 모든 인간은 서로가 한 형제임을 당신께 선언하는 바입니다』

『하느님을 숭배하고 그분의 가족들(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지어다』 하셨다.

이슬람은 그 내용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다분히 국제적이다. 이슬람은 무함맏(그분에 평화가 깃드소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각기 다른 형태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피부색, 이념, 혈통이나 영토에 바탕을 둔 차별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슬람은 인류 전체가 하나의 깃발아래 통합할 것을 희망하며 상호 경쟁과 불화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에 생명과 희망과 영광된 미래를 약속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심판대 위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이점에 관해 아주 흥미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날 서구사회의 세계동포애적 플로레타리아트 (서구인을 지칭함)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기의 두 원천 ―즉 심리적, 물질적 원천―은 다름아닌 종족차별 의식과 알콜리즘인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악의 원천과 대항하여 투쟁하는데 있어서 모범이 될만한 高揚된 도덕적, 사회적, 사회적 가치를 제시해 준 것은 다름아닌 이슬람정신인 것이다』

『무슬림들간에 종족의식을 소멸케 한 이슬람의 교훈은 지금까지 이 宗教가 이룩해 놓은 가장 괄목할만한 도덕적 성취의 하나인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이슬람의 포교가 절박하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다. 이슬람은 관용과 평화의 정신으로 이러한 종족의식을 원만히 해소시

켜 나가므로서 현대에 알맞는 종교로 재인식되 있는 것이다』

『서구인들의 장사속은 「술」이라고 하는 악덕을 열대지방의 원주민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것은 이들 주민들에 대한 최악의 사회적 혼돈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사회적 악덕은 정치지도자의 외적 권위만으로는 예방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각성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제거하려는 해방에의 욕구와 의지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소위 「앵글로－색슨」族 출신의 서구 정치지도자들은 종족차별의식에 기초한 「백색민족」의 우월감 때문에 그들의 이웃들로부터 정신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유색인종의 이웃들을 서구인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기에는 아직 그 서구정치 지도자들의 능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아마 이러한 정신적 괴리를 메꾸어 주는데 큰 역활을 할수 있는 것은 이슬람일 것이다』

『서구문명은 극히 최근에 급속도로 개방된 중동지역에 경제적 정치적 풍요를 가져왔던 동시에 사회적, 정신적 공백상태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이슬람은 서구사회의 세계동포애적 프로레타리아트들에게 두개의 가치 있는 교훈(차별의식의 배제와 금주)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먼 장래에 언젠가는 이슬람이 세계의 운명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註⑫)

6) 영원과 변화

영원과 변화라는 두 측면은 인간사회와 문화속에 공존하

고 있는 것이다. 각기 다른 이념들과 문화체계들은 이러한 영원과 변화라는 두 측면중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원에의 지나친 강조는 사회체계를 엄격하게 하여 유연성과 발전성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으며 반면에 영구적인 가치의 결여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무기력함, 그리고 무정부주의를 낳기 쉬운 것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양자간의 조화와 균형인 것이다. 즉 영원한 가치와 변화하는 현실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체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져스티스 카르도조」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 한 적이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발전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성장의 원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철학이다』 (註⑬). 이슬람은 바로 안정과 변화라는 두 측면의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하나의 이념체계인 것이다.

우리 인생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영원과 변화라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리만큼 완고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유연적이어서 자신의 독자적인 개성조차 형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체(人体)의 생리작용과 비교해 볼 때 명백해 진다. 인체의 각 세포조직은 일생동안 숱하게 변화하지만 사람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한 나무의 잎사귀, 꽃 그리고 열매는 변하지만 나무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영원과 변화라는 두 요소가 조화로운 평형상태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인생법칙인 것이다. 오직 이러한 공존상태만이 인간성과 인간사회의 요구를 만

족시켜 줄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기본문제는 연령과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기술은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슬람은 이러한 문제에 그 촛점을 두는 동시에 이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쿠란과 순나(Sunnah, 사도 무함맏의 전통)는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알라께서 주신 영원한 진리를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진리에의 지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자이신「알라」로 부터 제시되어 진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행동규범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진실로 현실적이며 동시에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알라」께서는 오직 굵직한 원칙들만 제시내려 인간들로 하여금 각자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히 적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각 시대의 인간들이 자기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알라의 성스런 제시를 적절히 보완, 적용하는 것은「이즈티하드(Ijtihad)」라는 수단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이 알라의 기본적인 제시는 영원한 것이며 그리고 그의 현실적인 적용방법은 각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슬람이 항상 아침햇살처럼 신선하며 현대성을 유지하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

7) 완벽하게 보존된 교훈록

끝으로 밝히고자 하는 이슬람의 성격은 이슬람의 모든 교훈들이 원래상태대로 보존된 한권의 서적, 즉 성 쿠란에 담겨있다는 것이다. 성 쿠란은 알라께서 제시내린 성전(聖典)으로 지난 1400년간 조금의 수정, 첨삭도 없이 보존되

어 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만의 생전 기록 역시그 원래 형태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이 예언자 무함만의 언행록(言行錄)과 역사적 사실 역시 반푼어치의 수정, 첨삭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무함만의 언행들은 「하디쓰(Hadith)」와 「시라(Sirah)」라는 저술들속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정교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다수의 비 무슬림 평론가들까지도 이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레이놀드 A. 니콜슨 교수는 그의 「아랍文学史」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쿠란은 무함만과 그의 외적 생활과의 관계를 아주 생생히 반영해 놓은 놀랄만한 인류의 文体인 것이다. 그래서 쿠란과 하디쓰만큼 이슬람의 초기발전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는 없다. 이점은 불교나 기독교, 그리고 여타 古代 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註⑭)

이제까지 언급해놓은 사항들은 이슬람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전인류에게 이슬람이 現代와 未来의 종교라는 확증을 심어주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과거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진리와 인류를 위한 옳은 길을 제시해 주는 종교로 간주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정결한 마음과 진리에의 진지한 열망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선언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알라이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께서는 어떠한 동반자도 가지지 않으심을 선언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무함맏은 그분의 사도이자 예언자임을 선언하나이다』라고.

後　　註

註 1) 쿠란에 「알라께서 무함맏에게 계시하길 :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에게 계시 내렸던 말씀, 즉 "믿음을 갖되 그 믿음안에서 분열하지 말지어다"라고 명하시었도다」 (쿠란 42 : 13)라고 되어 있다.

註 2) 이슬람이란 말은 SILM(시름이라고 발음된다)이란 어원에서 나왔다. 즉 첫째 의미는 "항복한다"는 뜻으로 aslama amrahu ila Allah는 자기의 주장을 하느님에게 맡긴다. 또는 자신을 신의 의사에 맡긴다라는 뜻이다. "아스라마"란 단어는 "신의 의사에 자신을 맡겼다 또는 무슬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SILM의 또 다른 의미는 "서로 화합해라, 평화를 유지하라"이다. Salm 은 평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Silm (시름)은 이슬람종교를 의미한다.

註 3) Francis Mason (E'd) The Great Design, Duckworth.

註 4) 성쿠란 2 : 30~39

註 5) 성쿠란 26 : 107-108, 110 : 125-126, 131 : 143-144, 150 : 162-163, 178-179.

註 6) 모든 다른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동일한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그가 "당신의 왕국이 도래하였나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처럼 지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로다"라고 말할때 의도하였던 것이다. 신약 마태복음 6장10절

註 7) G. B. Shaw, The Genuine Islam, Singapore Vol. 1, No. 8. 1936

註 8) Lord Snell, The New World. Watts & Co., London 1947. P. 11

註 9) 성쿠란 2 : 208

註10) 이슬람 생활양식의 다른 面에 처한 보다 더 완전한 연구는 다음 책을 보라 : Mawdudi, Abul Alla, 「Islcmic Law and Constitution」 (Lahore: Islamic Publications Ltd., 1960) : Mawdudi, 「Islamic Way of Life」 Lahore, 1967 : Khurshid Ahmad, (editor) 「Studies in the Family Law of Islam, Karachi」, 1960; Khurshid Ahmad, 「Family Life in Islam」, Leicester : Islamic Foundation, 1974 ; Siddiqui, M. B., 「Some Aspects of the Islamic Economy」, Lahore, 1970; Chapra, M. U., 「Economic System of Islam」, Karachi : University of Karachi, 1971.

註11) 故 H. A. R. Gibb 교수가 얼마전에 말했던 것을 여기서 상기해 보는 것이 좋을런지 모른다.

"西欧社会에서 이슬람은 양극화된 양대진영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민족주의 무질서와 러시아 공산주의의 조직화와는 반대로 오늘날의 유럽과 러시아의 특징인 경제적인 面에 固着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념들의 사회윤리적 측면은 Massignon 교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요약된바 있다. 「이슬람은 사회에 財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헌금을 평등하게 거두어 들이는 長点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매점매석과 금융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세를 용납하지 않으나 父와 男便의 權利, 私有財產, 社会복지財產을 특별히 옹호한다. 이런 点에서 또한 이슬람은 부르죠아의 자본주의와 볼세비키적 共產主義의 中間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人間의 大義에 더욱 더 공헌을 해왔다. 이슬람은결국 서양보다는 동양에 더 가까우며 人類 相互間의 理解와 協助를 重視하는 伝統을 갖고 있다. 어떤 社会도 이슬람만큼 수많은 각양각색의 인류의 地位, 機会, 労力을 平等하게 대우하는데 성공한 例는 없다.

이슬람은 분명히 화합할 수 없는 인류와 전통을 조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 東西진영의 対立이 協助에 의하여 代置될 수 있다면 이슬람의 중재는 무한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슬람은 동서 진영의 갈등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東西가 結合한다면 평화에 대한 희망은 무한히 부풀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서구진영에 이슬람의 협조를 거절하고 동구진영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양대진영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양대진영에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H. A. R. Gibb, Whither Islam, London 1932, P. 379.

註12) Arnold. J. Toynbee, Civilization, on Trial, London, 1957, PP. 205-299(see also PP. 87-88)

註13) Justice Cardozo, 37, H. L. R., P. 279

註14) Nicholson, R. A., Literary History of the Arabs, Cambridge, P. 143.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٧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الإسلام

مبادئه ومميّزاته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안 내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 : 서울중앙사서함2865
☎ 794－7307 · 793－6908
※**부산지회** : 부산직할시 중앙동 4 가77－ 3
☎ 44－3506
※**사우디지회** : Haji Ibrahim Jeon, P. O. Box 430
Jeddah, Saudi Arabia.
☎ 50020

이슬람을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기 주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슬람文庫 7

이슬람의 기본원칙

비매품

인쇄일 : 1978. 3. 6
발행일 : 1978. 3. 10
편집인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선교부
발행인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2－21
중앙사서함 2865 전화 : 794-7307, 793-6908
인쇄처 : 한국문화인쇄사 : 777－3930 · 3931

١٤٠٠ هـ
١٩٨٠ م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للنشر والتوزيع
شارع فهد السالم ـ عمارة الاوقاف رقم ٤
هاتف ٤١٤٢٢٠ ـ ص. ب. ٢٨٥٧ الكويت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٧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الإسلام

مبادئه ومميّزاته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